

李蒼巖時調研究

—新資料 紹介를 兼하여—

鄭 明 世

<目 次>	
I. 序 論	2. 內 容
II. 文 獻	3. 形 式
III. 作 家	4. 價 值
IV. 作 品	V. 結 論
1. 原 文	

I. 序 論

古時調作家에는 列聖, 名妓, 巨卿, 名公碩士, 歌者, 漁父, 吏胥, 豪遊 等各 身分階層이 網羅된다. 그리하여 作品傾向이나 內容에 있어서도 제작기 獨特한 個性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직 學界에 紹介되지 아니한 또 다른 身分인 朝鮮朝 後期 湖南 第一의 名筆 蒼巖 李三晩의 時調 1首가 있어, 筆者는 本稿를 通해서 이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本 資料는 洪在焦教授님의 厚意로 年前에 筆者가 처음으로 紹介한 바는¹⁾ 있으나, 作家名, 收錄文獻의 言及에 그친 程度로 소루한 바가 없지 않았다. 그 以後 筆者는 後孫과의 接觸 및 各圖書館探訪 등으로 이 李三晩의 時調에 관련된 傍證資料를 더 많이 蒐集함에 따라 舊稿의 補完, 修正을 계획하게끔 되었다. 이런 緣由로 本稿는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本稿의 內容은 먼저 時調가 收錄된 文獻의 形態를 밝히고, 이어서 作家에 대한 考察이 되겠으며, 作品에 대한 論及에서는 原文을 紹介하고 그 內容, 時調로서의 形式上 特徵, 나아가 그 價値를 究明하는 順序로 展開하고자 한다.

1) 拙稿: “古時調文獻의 研究”, 『嶺南大大學院論文集』 所收, 1982, 7. p. 70 參照.

Ⅱ. 文 獻

李三晩의 時調는 「諸賢歌詠」이라 題한 文獻에 收錄되어 있다. 慶北 靑松에 居住하는 後孫家 所藏으로 現傳하는 이 「諸賢歌詠」은 韓裝으로, 冊大가 縱 26cm, 橫 18.9cm, 分量이 總 18張으로 된 筆寫本類 文獻이다. 그리고 表題와 內題는 同一하게 「諸賢歌詠」이라 表示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本冊의 編次를 보면 述懷(退溪先生)欄이 序頭에 보이고, 계속하여 “詩操”란 項目을 排列하여 時調 3首를 筆寫해 놓았으며, 後尾에는 歌辭作品이 登載되었는데, 이 部分에 筆寫된 作品은 〈指路歌〉, 〈解蒙歌〉, 〈大明復讐歌〉 등이다. 그런데 文獻의 筆寫形態, 作品量, 編次 등으로 보아 「諸賢歌詠」과 同一한 性格의 文獻은 「時調朴氏本」, 「歌曲」 등이 되겠다. 한편 時調部分에서는 李三晩, 趙憲, 朴泰輔 등 3人의 作品이 收錄된 바, 이 가운데 後者 兩人 趙憲, 朴泰輔의 作品은 巨著「歷代時調全書」通番 2672와²⁾ 3320에³⁾紹介된 바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 가운데 本稿의 對象인 李三晩作 1首만이 新資料인 것이다. 아울러 本文獻의 筆寫年代는 筆寫者의 年代未記入으로 未詳이다.

Ⅲ. 作 家

한 人物의 生涯를 살피는 境遇, 그의 〈年譜〉는 作成되어 있어야 하고, 그 資料를 援用해서 이들을 年代順으로 檢討할 때, 그의 生涯 및 爲人은 具體的으로 밝혀진다. 하지만 李三晩에게 있어서는 文集조차 刊行된 적이 없어서, 本作家의 研究를 위한 1次的 資料는 零星하다. 그렇기에 그 履歷은 具體的이지 못하게끔 되고 말았다. 그것은 그의 生涯가 京師의 華職에서 顯達한 官名을 떨치지 못하고서 오직 鄉里인 井邑과 全州에서 處士로서의 安貧樂道의 生을 마쳤기 때문이다.

筆者는 本項에서 李三晩의 生涯를 究明하는 데 있어서 門中の 記錄인 世譜類 文獻과⁴⁾ 人名辭書類,⁵⁾ 該地方誌의 記錄物⁶⁾ 등 參考資料로 援用할 수

2) 沈載完,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pp. 975~976 參照.

3) 註 2)의 冊 p. 1215 參照.

4) 全州李氏持平公派譜, 李淳相家藏本, 全 6 卷, 1917年刊.

5) 李熙昇外 共編,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67, p. 642 參照.

吳世昌, 『槿域書畫徵』, 啓明俱樂部, 1928, p. 217 參照.

6) 全州市史編纂委員會編, 『全州市史』, 全州市, 1964, pp. 606~609 參照.

밖에 없었다.

李三晩은 英祖 46年(1770年) 9月 井邑縣 東西 富武室에서 將士郎을 歷任한 李枝喆을 父親으로, 母親 金海金氏의 次男으로 태어났는데, 作品活動地와 本貫은 다같이 全州이다.

그의 本名은 奎堯이요 字를 允遠, 號는 蒼巖이라 했는데, 蒼巖의 家庭은 累代에 걸쳐 極貧하여 그 自身 正常的인 受學의 機會를 얻지 못하고 論語, 孟子, 詩, 書 등을 어깨 너머로 익히는 等 學問盡力에도 他人보다 늦게야 始作했다. 또한 交友時期도, 成家하여 슬하에 子女를 두는 일도 늦어, 이에 緣由하여 그 이름을 스스로 三晩이라 改名하였다.

그는 井邑의 舊第에서 出生했고, 中年에는 全州 寒碧堂 上便 玉流洞으로 移居하였으며, 晩年에는 上關面 孔洞(俗稱, 공기골)에서 隱居生活을 했다.

蒼巖은 幼時부터 글씨쓰기에 몰두하였고 몇 해 동안 筆家의 門에 出入했다. 그리고 病中에서조차도, 하루에 1천자씩 연습하여 벼루를 3개 정도 구멍을 뚫었다. 그에게 글씨를 배우러 오는 學童이 있으면 한 자 한 획을 지도하는 데 1개월씩 걸렸다고 한다.

그가 19歲되던 正祖 12年(1788年) 父親이 毒蛇의 禍를 당하여 世上을 떠나니, 蒼巖은 蛇類만 보면 父親의 怨讐다 생각하여 잡아서 生食할 程度로 哀痛한 바가 극진했으며,⁷⁾ 홀로 된 母親을 지성껏 받들었는데 年高한 母親 奉養을 위해서 父親慘禍後 한 번도 鄉里를 떠나 본 일이 없었다.

그가 本格的으로 書藝의 技法을 익히기는 中年에 들어 忠淸道에서 中國 晋代의 周珽의 作品과 서울에서 柳公權의 眞蹟을 求得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 晩年에는 新羅人 金生의 글씨를 얻어 한번이나 썼던 것으로 하여 완숙한 경지에 들었다.

蒼巖이 湖南 第一의 書名을 얻게 된 것은 嶺南의 大商들이 偶然한 機會에 全州에 들리게 되고, 藥和劑를 써 달라는 格式으로 그의 作品을 求得해 간 것이 그 始作이다. 그가 남긴 作品으로는 湖南各處의 名勝巨刹이나 高樓巨閣의 懸板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河東의 大佛庵, 全州板의 七書, 濟南樓扁額, 全南求禮郡의 泉隱寺懸板 등은 逸品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의 나이 71歲되던 憲宗 6年(1840年), 6年下인 金秋史와 인연을 맺었

7) 蛇類들이 李三晩의 姓名만 들어도 도망간다고 하여, 民家에서는 장독대나 부엌에 “李三晩” 3字를 거꾸로 써붙여 逐蛇한다고 함. 이 民俗은 井邑, 高敞地方에 전한다.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北篇, 螢雪出版社, 1977, p. 483 參照

다. 秋史가 濟州島로 귀양 가는 길에 全州에 들렀었고, 秋史는 蒼巖의 글씨를 보고 “操筆三十年, 不知字劃”이라는 惡評을 남기고 떠났다. 그 후 秋史는 12年만에 귀양지에서 풀려나 다시 全州에 들렀고, 이때는 蒼巖이 이미 故人이 된 數年 뒤였다.

蒼巖은 78歲되던 憲宗 13年(1847年)에 世上을 떠났다. 그의 墓所는 全州 九耳面 尺洞에 있는데, 그 墓碑는 秋史의 親筆로 前面에 大字로 “朝鮮名筆 處士李三晩之墓”라 적었고, 그 內容의 一節에서도 秋史는 “公의 筆法은 이 나라의 으뜸이라 老益神化하니 中國에도 그 이름을 떨치고 弟子數十人이 日常 모시고 배운지라 또한 世上에 이름을 나타낸 이가 많도다. (公筆法 冠我東 老益神化 名播中國 弟子數十人 日常侍習 亦多薦名于世)”라고 極讚의 評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蒼巖은 當代의 名筆로 鄉里의 골짜기에 隱居하면서 淸貧한 生活을 하였다. 그의 글씨는 높은 境地에서 다루어졌으며, 書道人으로서 風流로운 文章과 슬기로운 矜持를 지녔다. 孤高한 人格과 深奧한 思想으로 凝結된 그 自身の 作品世界는 俗된 眼目으로는 理解하기 어려우며, 蒼巖은 圓嶠 李匡師, 秋史 金正喜와 더불어 朝鮮朝 後期를 代表하는 書藝의 大家이다.⁸⁾

IV. 作 品

1. 原 文

李三晩의 時調作品 1首는 筆寫本類 文獻 「諸賢歌詠」, 〈詩操〉라 表示한 部分에⁹⁾ 收錄되어 있는데 그 原文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柴門의 기것거릴 童子불너 너는가보라
이러홀 僻巷窮村의 어논버지 날찾난고
안막도 秋風이 쇼실흐니 落葉인마

2. 內 容

本 蒼巖의 時調를 現代語로 풀이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8) 蒼巖의 生涯에 관한 論及中, 筆者의 資料 未涉獵으로 多少 未治한 部分은 後日 補完하기로 한다.

9) 時調의 異稱은 短歌, 永言, 詩餘, 新翻, 時節短歌, 時節歌 등이 있는데, “詩操”라 지칭한 것은 用語概念을 살필 수 있는 좋은 實例가 된다.

張師勛, 『時調音樂論』, 韓國國樂學會, 1973, p. 179 參照.

사립문에 개가 짖거늘 아이를 불러 네가 나가보라고 하거늘
이리한 떨어진 마을, 구차한 산골에 어느 벗이 나를 찾아오겠는고?
아마도 가을바람이 쓸쓸히 부니 낙엽 떨어지는 소리인가

위의 時調를 內容上으로 分類할 때에는 閑情類에¹⁰⁾ 該當이 된다.

先人들은 江湖閑人의 生涯로 自足하고, 그들 自身이 風月主人으로 行勢越高, 無事隱逸의 心情으로 山水景을 玩賞하면서 創作한 時調가 閑情類에 속하는 作品들이다. 그러나 위의 作品은 表面的으로는 江湖閑情을 노래하면서도, 事實 그 內面에는 聖恩에 感泣하거나, 學問修德의 心情을 吐露한 內容의 作品類와¹¹⁾ 그 軌를 달리 한다.

李三晩이 지은 上例 作品은 山間僻村에서 困窮한 生活을 營爲하는 作家 自身의 閑適한 心情과 安分自足보다는 脫俗의 心緒와 空虛感을 表出한 內容에 포함이 된다.

上記 內容을 各章別로 檢討해 본다. 初章은/사립문 밖에 개가 짖으니 벗이 찾아오나 보다. 가서 맞아오도록 하라/고 한 部分인데, 問題삼을 수 있는 詩語는 “柴門犬吠聲”이다. 이와 類似한 句節을 찾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柴門犬吠聲¹²⁾에 반가운 벗 오느고야. (『歷代時調全書』¹³⁾ 140)

東嶺에 달오르니 柴扉에 기웃는다. (『時全』 875)

山村에 밤이드니 민작기 으쳐온다. (『時全』 1450)

柴扉에 개즈쳐도 山中에 오리업다. (『時全』 1764)

柴扉에 기웃거늘 님만너겨 나가보니. (『時全』 1765)

柴扉에 개웃는다 이山村의 귀뉘오리. (『時全』 1767)

이 柴門이 있는 山村은 塵世의 煩雜을 벗어난 곳이고, 여기 찾아오는 人跡이 끊어진 作家의 草屋 柴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作家는/柴扉에 개즈쳐도 山中에 오리업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무엇에 대한 期待를 갖게 되고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던 知己를 기다린다. 初章은 이처럼

10) 作品의 主題에 해당되는 用語는 下記의 冊을 따랐다.

秦東赫, 『古時調文學論』, 螢雪出版社, 1976, p. 31 參照.

11) 拙稿, “朴龍巖時調研究” 『語文學』 第46輯, 韓國語文學會, 1985, 3, pp. 229~230 參照.

12) 詩語 위에 加點은 筆者가 任意로 붙인 것임.

13) 本項 以下에서는 便宜上 「時全」이란 略名을 使用한다.

빛을 기다리는 孤寂한 作家의 心情을 吐露한 內容이다.

中章에서는／이러한 떨어진 마을, 구차한 산골에 어느 빛이 나를 찾아오겠는고?／라고 노래했다. 그 類似句節을 紹介해 본다.

綠水青山 김문 골에 차차오리 뉘 잊시리. (『時全』 639)

僻巷窮村에 뉘날을 차차오리. (『時全』 875)

柴扉을 여지마라 날차즈리 뉘 이스리. (『時全』 1457)

索居閑處 집 혼골에 차차올이 뉘이설이. (『時全』 1526)

中章에서 作家는 僻巷窮村에서 孤高하게 處世하는 自身の 모습을 形象化했다. 飢寒이 切身하고 羞侮가 太甚한 窮苦之狀에서도 作家는 自然을 벗하며 貧而無怨하고 安貧樂道하는 가운데 生活한다. 하지만 待人難을 體驗하고 寂默의 雰圍氣에 휩싸이게 되고, 結局／僻巷窮村에 뉘날을 차차오리／하고 自問하고 있다. 그것은 寂寞山家에서 生活하는 作家自身の 自嘆이기도 하다.

終章은／아마도 가을바람이 쓸쓸히 부니 낙엽 떨어지는 소리인가／로 불리워졌다.

이 終章과 類似的한 表現句節은

간밤에 지게여던 바람 솔드리도 날소겨다. (『時全』 73)

落葉이 물발에 지니 님넵히 秋聲이라. (『時全』 280)

저각야 秋風落葉을 헛도이 즈겨 날 소길줄 엇지오. (『時全』 1765)

上記와 같다.

終章에서 作家는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니, 그것이 혹시나 멀리서 찾아오는 빛의 발자국소리이거나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아닌가 가슴도 설레어 본다. 그러나 그것은 幻想의 連續일 뿐이며 現實에서 이루어지는 狀況은 아니다. 남는 것은 오직 텅빈 知覺 뿐이다. 하지만 抒情的 自我는 誤覺한 柴門의 개를 나무라지는 아니한다. 단지 作家는 소슬한 秋風을 確認해 볼 뿐인 것이다.

한편 蒼巖時調는 그 二元的 性格上으로 分類해 볼 때에 抒情的 作品群에¹⁴⁾ 속한다. 이런 種類의 作品들은 作家가 自身の 心情이나 처지를 客觀的 事物을 媒介로 하여, 或은 事物과 同一化하여 表出한 것들을 포괄한다.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蒼巖은 自身の 孤寂한 처지를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14) 鄭炳昱, “時調文學의 概觀” 『時調文學事典』 所收, 新丘文化社, 1966, 第3面 參照.

落葉을 媒介로 하여 同一化한 表現을 시도한 것이다.

위에서 論及한 內容을 갖고서 짐작하건대, 蒼巖의 時調는 그의 晩年生涯 中 全州 上關面 孔洞에서 隱居生活을 하고 있을 때에 創作된 것 같다.

아울러 蒼巖時調는 下記에 紹介하는 作品들과 그 趣意가 相通한다.

柴扉에 지긋거늘 님만 너겨 나가보니

님은 아니오 明月이 滿庭홀의 一陣秋風에 넘지는 소리로다.

저기야 秋風落葉을 헛도이 즈저 날소길줄 엇지오.

〔時全〕1765

白雲은 簷下의 倦鳥는 林中的의 진다.

數村 鷄犬이 野人家의 風味로다.

人間世를 다니츠시니 어너벗이 츠자오'.

〔時全〕1205

山村에 밤이드니 먼되기 즈저운다.

柴扉를 열고보니 하늘이 츠그 달이로다.

저기야 空山 잠든달을 즈저 무슴 향리오.

〔時全〕1458

3. 形 式

古時調는 一部分의 作品들이 歌題가 붙어 있는데, 蒼巖의 時調처럼 短型 時調의 境遇도 同一하다. 이들 歌題가 併記된 作品은 自體의 性格이나 主題를 把握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⁵⁾

그러나, 蒼巖의 時調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그 自身이 詩歌에 대한 關心度가 稀薄했음을 立證하고 있다.

다음으로 蒼巖時調의 表現樣式을 두고서 생각할 때, 그는 作品全體에 亅하여 表記手段은 우리말과 漢字語의 混用方法을 取했으나, 그 表現의 實相은 不自然, 진부함, 고루함이나 誇張된 修辭法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作家의 感情은 자연스럽게 露呈되고 뜻의 曲盡함을 나타내기에 充分하다.

이어서 蒼巖時調의 構造에 對하여¹⁶⁾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作品은 作品 속에 담긴 詩想이 大部分의 時調처럼 세 개의 章이 順

15) 沈載完編著, 『定本 時調大全』, 一潮閣, 1984, pp. 883~889 參照.

16) 時調의 構造의 分析에 對해서는 아래 冊을 參照함.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pp. 219~238 參照.

次的으로 展開되어 나간다. 이것은 時調를 漢詩처럼 起承轉結의 詩想展開을 取하는 抒情樣式으로 把握한 데에 근거하고 있다. 初章의 抒情的 自我의 行爲가 中章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中章의 생각은 다시 終章에 와서 마무리가 된다. 作家는 初·中章에서 行爲와 생각의 複合構造로 作品을 構成했다. 初章과 中章은 부연, 서술된 構造에서 作家 自身の 生相活이 表現되어 있고, 終章에 이르러서는 떨칠 수 없는 知人을 생각함이 강렬하게 表出되고 있는 가운데 終結은 無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類型의 時調는 그 展開過程에서 單調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 單調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對照나 對偶의 技法을 使用했다면 本作品은 한층 더 成功을 거둘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끝으로 本 作品은 唱時調에서 發見할 수 있는 것처럼 終章終句가 省略되고 있다. 古時調 終章의 終句는 詩意構造上 큰 意味를 갖지는 않는다. 時調를 唱할 때는 이 終章終句를 省略하여 부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時調文獻의 轉寫에서도 이를 省略한 것이다.¹⁷⁾ 蒼巖의 時調에서 이러한 類型의 作品이 나타나게 된 點은 作家의 活動地가 唱曲의 本産인 全州地方이라는 點과 本 作品이 唱曲이 盛行되던 朝鮮朝 後期에 創作되었다는 事實에서 充分히 可能한 것이다.

4. 價 值

本「諸賢歌詠」에는 都合 3首의 作品이 收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蒼巖 李三晩의 作品 1首는 既刊「歷代時調全書」에 紹介되지 아니한 新出作品으로 그 價値를 지닌다.

古時調作家는 他文學部分에 比해서 作家階層이 廣範圍하다. 그 가운데 名筆으로서 時調를 創作한 人으로는 韓濩 石峯이 있었다.¹⁸⁾ 그런데, 本稿의 對象이 된 李三晩의 作品 1首가 더 發掘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身分의 作家가 存在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李三晩의 作品은 一助가 된다.

또한, 李三晩이 時調를 創作함으로써 湖南歌壇의 形成이 潭陽, 長興, 羅州, 海南, 淳昌, 光州, 靈巖 등을 主軸으로 삼았던 것에서¹⁹⁾ 全州地方으로

17) 金東旭, 『國文學史』, 日新社, 1976, p. 135 參照.

18)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世宗文化社, 1972, p. 278.

19) 丁益燮, 『湖南歌壇研究』, 進明文化社, 1975, pp. 3~9 參照.

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暗示해 주고 있다.²⁰⁾

V. 結 論

以上 李三晩時調에 關해서 論及한 內容들을 要約, 整理하여 結論을 삼고자 한다.

① 古時調 3 首가 收錄된 「諸賢歌詠」은 本稿를 통해서 具體的으로 論及의 對象이 된 셈이다.

이 文獻의 分量은 1 冊, 總 18 張으로 되어 있고, 文獻의 性格은 筆寫本類 文獻에 속하는데, 時調는 述懷部分에 이어 收錄된 가운데 李三晩作品 1 首만이 新出資料이다.

② 本稿의 對象이 된 李三晩은 字를 允遠, 號를 蒼巖이라 했으며, 그는 英祖 46 年(1770 年) 全北 井邑에서 出生하여 憲宗 13 年(1847 年)에 卒하였다. 그는 平生을 學問研磨와 湖南 第一의 書名을 얻기까지에 있어 書法書道의 體得에 힘쓰며 寒微한 藝術家로서의 一生을 보냈다.

③ 蒼巖의 時調는 그의 晩年生涯에 該當되는 全州 上關面 孔洞에서의 隱居生活中에 創作되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④ 本時調의 內容은 閑情類에 해당되며, 山間僻村에서 困窮한 生活을 營爲하는 선비들의 閑適한 心情을 代辯해 주는 例이다.

⑤ 蒼巖은 作品構成에 있어서 作品自體의 性格이나 主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歌題를 併記한 詩歌에 대한 關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詩語의 選擇이나 表現手法上은 不自然, 진부, 고루함, 과장됨은 찾을 수 없어, 그의 文學的 才質이 過人하였음을 立證해 준다.

⑥ 本作品의 發掘, 紹介로 인해서 時調作家層의 範圍를 확대시켰고, 湖南 歌壇形成에 全州地方도 參與의 可能性을 示唆해 준다는 事實이 本稿가 갖는 意義인 것이다.

[參考文獻의 紹介는 脚註로 代身함]

《後記》

筆者는 本稿를 위해 指導의 말씀과 諸 資料를 활애해 주신 沈載完, 洪在雋, 李淳相 님께 本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 筆者의 이러한 推論은 확대해석의 餘地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後日 資料補完을 통해서 이를 立證하기를 기대해 본다.

《附》 時調原文 및 李三晩手蹟.

詩操 李三晩

柴門외 기갓거려 童子부른니는 가보라니려
 玄僻巷窮村외 어는 버리날 하^나고 산^나드 秋風
 이 소슬하니 落葉이^나

富趾
 李三晩
 手蹟